

국립공예관의 역사적 건축물

국립공예관의 건물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지어진 2 개의 목조건축물을 이전, 개조,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하나는 '구 육군 제 9 사단 사령부 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구 육군 가나자와 가이코샤'입니다. 이 두 건물은 모두 19 세기 후반에 지어진 귀중한 서양식 건축물로, 1997 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메이지 시대 건축물의 특징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200 년 이상 쇄국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1854 년에 군사력에서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미국 함대의 내항으로 인해 강제로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들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깨달은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건축을 포함한 서양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양의 건축가들을 초빙했고, 일본 건축가들 역시 독자적으로 서양건축물의 외관 등을 모방해 건축물을 세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 육군 9 사단 사령부 청사

국립공예관 정문 왼편에 위치한 건물은 과거 대일본제국 육군 제 9 사단 사령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 사단은 1898 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는 가나자와성 니노마루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나자와대학 본부, 이시카와현민공사, 박물관의 수장고 등으로 재활용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조와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 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면서 당시의 외관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20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좌우대칭 구조, 상하로 열리는 창문, 필라스터와 페디먼트를 사용한 외관 등은 19 세기 후반 서양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내부는 중앙의 넓은 현관 홀이 느티나무로 제작된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한 한 쌍의 기둥 상부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형 기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칸서스 잎 장식이 회반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창문은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가로로 여닫는 방식이 아니라 상하로 여닫는 슬라이딩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육군 가나자와 가이코샤

국립공예관 정문 현관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은 1909 년에 고급 장교들의 친목장소(장교클럽)로 이 부근에 건설된 구 육군 가나자와 가이코샤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의 국세국을 거쳐 인근의 노가쿠도 대기실, 인접한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의 수장고 그리고 이시카와현의 여러 사무실로 활용되었습니다. 구 제9사단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2017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2020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붕 중앙부분이 급경사를 이루고 상부가 수평으로 된 망사르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망사르드 지붕은 특히 18~19세기 프랑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축양식입니다. 또, 정면에 사용된 코린트식 필라스터와 지붕의 도머 창문 등 바로크적 요소도 도입되어 무명의 건축가가 가진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서양건축답지 않은 점은 건물 기초부에 있는 환기구의 격자무늬에 그려진 오망성(별모양)입니다. 이것은 제국 육군 군복에도 수놓아져 있던 행운의 상징이었는데, 그 기원이나 군대의 상징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 별은 '다마요케(액을 쫓는 부적)'라고 불렸는데, 동음이의어로 '총알을 막아주는 부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었습니다.